

공익기관으로서 시험시설이

建物は 인간의 생활을 담는 그릇으로 인간생활에 안전한 空間을 부여하고 이를 보호하는 것이 중대한 기능의 하나이다.

근래 우리나라는 先進産業社會로의 移行과 더불어 建築物이 고층화, 대형화 추세를 따르고 있지만 그에 비례하여 각종 建築災害의 발생과 그 피해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옛부터 3災라하여 火, 水, 風災를 대표적 災害로 일컬어 왔지만 오늘날 建築災害중 빈도가 많고 중요한 것이 화재라 할 수 있다. 88년도 화재 발생통계에 의하면 한해 전국의 화재발생건수는 12,507건이며 재산피해액이 3,478억원으로 화재사건으로 인한 재산손실도 막대함을 찾아볼 수 있으며 화재의 양상 또한 다양화, 대형화되어 그 위험도도 점차 증대추세에 있다.

그러나 建築災害에 대한 건축물의 안전성확보는 필수적인 것으로 건축부재에 대한 적절한 내화등급의 분류는 건축물의 방화조치상 구조적 안전성에 결정적 역할을 한다.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재인 보나 기둥은 건축물의 층별 또는 구조별로 1~3시간 耐火性能이 있어야 하며 벽체도 내·외벽 또는 내력, 비내력 벽인가에 따라 30분~2시간의 내화성능을 갖어야 한다. 그외 새로운 자재나 공법으로 시공된 구조체는 건축법시행령에 따라 건설부장관이 그 내화성능을 인정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 이제까지 우리나라에서 적용된 건축구조방식을 대부분 철조콘크리트조 또는 조적조를 이용한 습식공법이 주를 이루어왔으나 현재 노동인력의 부족 및 노령화현상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만큼 새로운 자재나 공법으로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고 이러한 구조체에 대한 적절한 내화성능의 유지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활용되어야



金 德 在

〈中央大学校 工科大学長・工博〉

건축구조에 대한 내화성능시험방법은 KSF2257(건축구조부분의 내화시험방법)에 규정되어 있어 이를 국립건설시험소에서 실행하여 왔으나 사단법인 한국화재보험협회 부설 방재시험소(FILK)가 1986. 4에 설립·운영되면서 소방용제품, 건축재료, 선박용품에 대한 국가인정시험 대행업무 및 각종 방화관련제품들의 안전도시험을 시행하게 되었다. 또한 방재시험소는 이제까지 수행해 온 방재업무를 더욱 효과적으로 발전시키는 방향에서 방재에 관련된 시험, 조사, 연구결과 보고서등 각종 기술자료들을 수집하고 이 자료들의 열람, 대출, 복사 서비스 뿐 아니라 미국의 DIALOG 일본의 JOIS등의 Data Bank로 부터 DACOM-Net를 이용 on-line정보검색 서비스도 대행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88. 9에는 8억5천만원의 자체경비를 투입하여 構造部材의 耐火性能을 평가할 수 있는 耐火試驗設備를 완비하고 국립건설시험소로부터 내화성능시험기관의 지정 받아 시험업무는 수행하게 되었음은 매우 고무적인 사실로 이를 널리 홍보토록 하여 각계 각층으로 부터의 적극활용을 권장하는 바이다. 다만 수요처에 따라 실비이용을 가능케하여 교육기관 및 기타 연구기관으로 부터의 이 시설의 많은 활용을 유도하고 더 많은 실험장비와 연구인력의 투입으로 연구소의 면모를 끊임없이 쇄신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같은 일련의 노력은 건축물의 화재로 인한 인명이나 재산의 피해경감을 위한 것이나 근본적으로는 내화구조의 규정을 잘 지킴으로써 만이 상대적으로 안전성이 커지는 효과가 있음을 상기하면서 앞으로 본 시험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